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④

2014년 10월 15일(수), 오후 2~4시

#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 덕 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④

##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 1. 김해의 정체성

김해는 경주와 함께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한반도 전체에서도 김해는 평양·경주와 함께 가장 유서 깊은 고도(古都)의 하나이다. 이천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 세 고도는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평양과 경주는 고도의 유산을 전승하고 있으나, 김해는 그렇지 못하다. 이 강의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의 하나인 김해를 입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역사지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 정보이다.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땅이름 곧 지명은 대상의 정체성(正體性)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다. 여러 가지 지명 가운데 김해(金海)라는 이름이 이 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김(金)은 철(鐵)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해(海)는 바다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가락국 건국에서 3세기까지가 김해가 가장 번영한 시기였다. 김해는 철이라는 신기술 상품과 바다에 면하는 연안항로의 장점이 가장 잘 결합되었던 초기 가야 시기에 번영한 것이다. 철(金)이 김해가 가진 내재적 입지(절대적 입지요인: 자원)이라면, 바다(海)는 김해가 가진 관련적 입지(상대적 입지요인: 접근성)이다. 그러나 가락국(금관가야, 본가야, 구사국: 狗邪國)이 5세기 중엽에 신라에 병합된 이후, 김해는 고도(古都)의 위상을 상실하고 지방 중심지로 전락한다. 낙랑군의 멸망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이라는 5세기 이후의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김해로 하여금 낙랑·삼한·왜국을 연결하는 연안항로의 중개지 입지를 상실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이후 철생산 기술 역시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특산품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5세기 이후 김해는 철 생산이라는 절대적 입지와 바다라는 관련적 입지의 장점을 모두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김해는 낙동강을 활용하는 무

역도시의 이점이 없어지고 전형적인 지방 중심도시의 길을 가게 된다.

김해의 탄생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대 국가 가야의 성립 신화에서 나타난다. 가야사는 성립에서 멸망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역사기록이 거의 없는 까닭에 고고학적 자료에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국립 김해박물관에 소장된 전시자료는 가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리학에서는 도시의 탄생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입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상대적 입지이고, 자체 내부의 특성을 보는 것이 절대적 입지이다. 한 도시가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 즉 도시가 되려면 상대적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남권의 도시, 부산·진주·김해를 비교해보자. 가야시대를 시작으로 하는 고대에는 김해가 대표적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진주가 대표적 도회지였다. 20세기부터는 부산이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가 되었다. 왜 그런가? 부산은 일본과 교류하는 항만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안이지만 산이 많아 자체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교류하는 항만 거점으로는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진주는 내륙 도시이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남강의 지류가 합류하는 곳에 있어 농업생산물이 모이는 곳이다. 농경사회인 조선시대에 진주는 “동방의 육해(東方之陸海·『신증동국여지승람』)”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상우도, 지금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였다. 그렇다면 김해의 입지 특성은 어떠한가?

김해는 입지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남해 바다와 만나는 낙동강, 낙동강의 하구이다. 『택리지』에 낙동강을 기술하면서 김해와 낙동강의 관계를 정의한다. 김해가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수구, 곧 입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낙동(洛東)’이란 말은 상주의 동쪽이란 뜻이다. 강은 김해로 들어가면서 온 도의 한가운



데를 가로지른다. 강 동쪽을 좌도(左道)라고 하고, 강 서쪽을 우도(右道)라고 한다. 두 갈래가 김해에서 크게 합쳐지고, 70 고을의 물이 한 수구로 빠져나가면서 큰 형국을 만들었다.

『택리지』 「팔도총론」 경상도 조

위의 글에서 경상도는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이며, 김해에서 두 갈래 강물이 만나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남 지역의 많은 교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연은 낙동강이다. 경상남도 도 단위의 기념식에서 부르는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경남도민의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경상남도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는 가야의 옛터이며, 태어남은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생활문화는 낙동강에서 일구었으며, 남해 바다로 나아가는 진취성을 제시한다.

“여기 가야의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 곳,  
지리산 정기를 받아, 혈관 속엔 정의의 기백,  
낙동강 흐름을 따라, 문화의 전통 몸에 배었네,  
넘실넘실 남해의 파도, 우리의 겨레 겨레의 기질”

## 2. 김해의 관문적 입지

낙동강은 역사적으로 경남 사람의 삶의 터전인데, 그 물목에 자리 잡은 도시 국가가 김해이다. 『삼국유사』 기이제2(記異第二)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보면,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伽倻)’의 영역에 대하여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창해(滄海),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 남쪽은 나라 끝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황산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곧 낙동강을 말한 것이다. 가야와 신라의 경계선이 낙동

강이었던 것이다. 김해가 가야 제국의 초기에 패권을 잡게 된 요인은 낙동강의 물목이라는 입지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다. 1-3세기에 가야의 소국들은 전기 가야연맹 변한연맹을 이루고 있었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당시 낙랑, 왜국과 교역에서 남해안에 접하면서 낙동강 하구를 장악하는 지리적 입지 활용한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수로가 여러 가야의 시조로 인식되는 것은 김해가 초기 가야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내륙 낙동강 변에 위치한 소국들이 대외 교역을 하자면 반드시 하구의 김해를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낙랑군으로부터 왜에 이르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낙랑군에서 해안을 따라가다가 한국을 거쳐 다시 남과 동으로 잠시 가다 보면 그 북쪽 해안에 있는 狗邪한국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7천 리이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바다를 건너 1천 리를 가면 대마도에 이르게 된다....” -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왜인 조.

이 시기 김해에 입지한 금관가야는 낙랑군·한국·해안을 따라 남·동행·금관가야·바다 건너·대마도와 왜국 무역로, 즉 연안항로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 ‘연안항로의 시대(BC 108년 낙랑군 설치에서 313년 낙랑군 축출까지)’에 김해는 국제 교역로의 중심 입지와 거기에 더하여 낙동강 수로를 활용하였다. 김해는 관문(關門)이라는 지리적 입지 이점을 가진 전략적 거점(strategic point), 관문사회(gatewaycommunity)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지 이점을 활용하여 김해는 동북아시아 일대의 무역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철을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큰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전(弁辰傳)의 아래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변진도 12개 국으로 되어있다. .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韓濊倭인들이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모두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비파가 있는데 그 모양은 축(筑: 거문고 비슷한 대나무로 만든 현악기)과 같고 연주하는 음곡(音曲)도 있다...(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飲酒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한 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 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가 모두 문신을 하기도 한다. 步戰을 잘하며 병장기는 마한과 같다. 그들의 풍속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길을 양보한다. 변진은 진한 사람과 뒤섞여 살며 성곽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은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들 용신을 모신다. 그중에서 독로국은 왜(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위의 기록은 금관가야(구사국: 狗邪國)가 철을 생산해서 마치 중국에서 엽전을 사용하듯이 화폐를 대신하는 무역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무역 대상에는 이웃 마한 진한 뿐 아니라 왜국, 그리고 중국 한(漢)의 군현이었던 낙랑 대방 등 동북아 각국이 포함된다. 이 기록에 변진(弁辰)의 풍습이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고, 또 축(筑: 아마도 가야금의 원조가 아닐까)과 같은 악기와 작곡된 노래까지 있었다 하였다. 이는 철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 풍요하고도 고급스런 여가 문화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가야가 당시 최고의 신기술이었던 철 생산과 이를 화폐 대용으로 활용하여 한(韓) 및 낙랑과 왜국 사이에서 교역의 이점을 차지하는 번영을 누리고 주변의 다른 가야 소국을 영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과 마구 등은 가야문화가 철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철제품이 당시 동북아시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이것을 금관가야가 주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 3. 입지 이점의 상실과 가야의 멸망

지리적 입지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리던 금관가야(本伽倻)는 3세기 이후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쇠퇴하기 시작한다. 김해가야는 법흥왕19년(532)에 신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관문 입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당시 최고의 신기술인 철의 생산과 무역을 중개하는 가야의 입지 이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우선 낙랑군이 멸망함으로써(313년), 국제무역을 중계하는 근거를 잃게 되었다. 무역의 이점을 상실한데서 설상가상으로 인근 가야동맹국들이 금관가야를 넘보기 시작했다. 이른바 포상팔국(浦上八國)이라고 불리는 경남 남서 해안의 주변 가야 소국들의 연맹체가, 신라 내해니사금 14년(209)에, 그 때까지 큰형이었던 금관가야를 침범하였다. 가야의 왕자가 신라에 원군을 요청하자 신라가 이를 구원하였고, 3년 후에는 금관가야가 신라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 신라에 의존하게 된다.<sup>1)</sup> 그 이후 가야연맹의 주도권도 금관가야에서 멀어졌다. 가야의 중심세력은 아라가야(함안)을 거쳐, 5세기 후반에는 내륙의 대가야(고령)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부터 금관가야는 그 관문적 입지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변 강대한 세력의 각축장이 되는 곤경에 빠진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2권 奈解尼師今條 14년, 17년 기사

백제가 전남 지방을 세력권에 편입시키고 낙동강 권역으로 진출하더니, 서기 400년(광개토대왕10) 왜(倭)가 신라에 침입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의 군사를 보내어 왜를 추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김해 가야(‘任那加羅’)에까지 침범하였다고 호태왕비(광개토대왕)문에 기록되어 있다.

“(영락) 10년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가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그곳에 가득하였다. (고구려의) 관군이 바야흐로 이르니 왜적이 물러나 □□하여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는데, 성이 즉시 귀복하였다.”<sup>2)</sup>

금관가야의 발전과 쇠퇴의 과정에서 교통로의 요충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자신이 그 발전 동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주변 각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다는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지리적 입지와 관련하여 고대의 김해와 경주의 역사를 비교할 수 있다. 교통조건이 좋은 김해 가야가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한 것과 반대로, 치우친 산간 분지라는 불리한 지리적 입지인 경주의 사로국(斯盧國)은 주변 소국을 병합하면서, 가야를 정복하고 신라(新羅: ‘德業日新 網羅四方’)로 발전한다. 신라는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의 왕국이 되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낙동강이 신라와 가야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고, 강의 동쪽에 있던 신라가 강의 서쪽에 있는 가야를 병탄하였음을 아래와 기술하고 있다.

“경상도는 동남쪽이 바다에 닿고 서쪽은 큰 산맥(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와 인접했

2)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渾來背急 追至任那加羅 從拔城 城即歸服”

다. 낙동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신라가 이 강의 동쪽에, 다섯 가야(五伽倻)가 이 강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 뒤에 가야는 신라에 통합되었다.”

이처럼 낙동강 하류는 고대에 가야(伽倻)의 강이었고 낙동강이 신라와 가야의 국경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강 이름은 ‘황산하’ 혹은 ‘황산강’ 이었는데, 이는 ‘넓은 들을 지나는 큰 강’ 이란 뜻을 가진 ‘한뫼 가람’ 을 한자로 음역한 지명이라 한다.<sup>3)</sup> 황산강은 신라 때 사대독(四大瀆; 사대강)의 하나로 국가에서 중사(中祀)를 지냈다.<sup>4)</sup> 또 고려에서는 황산강이 무안의 영산강 광양의 섬진강과 함께 풍수적으로 개경을 ‘거슬러 흐르는 삼대강(背流三大水)’ 으로 일컬었다.<sup>5)</sup> 따라서 신라와 고려시대까지도 ‘황산강’ 이 낙동강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 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낙동강(황산하)에 관한 기록은 신라의 가야 진출과 관련된 기사이다.

“기마니사금(祇摩尼師今) 4년(서기114) 2월에 가야가 남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너는데, 가야 사람들이 숲속에 복병을 설치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 - 『삼국사기』 권 제1신라본기 제1기마니사금 7월조

“미추니사금 3년(262) 2월에 왕이 동으로 순행하여 해역을 바라보고 3월에 황산(黃山)으로 순행하여 고령자와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를 구제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2미추니사금 3년 조

3)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지명유래집』, 122쪽

4)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중사(中祀)에 해당하는 사독(四瀆) 가운데 남독(南瀆)에 대한 제사를 삼량주 황산하(黃山河)에서 지냈다고 전한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2권 양산군 장, 산천 조.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여 양산 쪽을 장악하고 황산진을 김해 쪽의 금관가야에 진출하는 요충으로 삼으면서, 낙동강은 ‘황산하’ 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2세기부터 신라와 가야는 황산강을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인다. 점차 신라가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고, 드디어 법흥왕19년(532) 이사부(異斯夫)가 지휘한 신라군이 황산강을 건너 가야를 멸망시켰다.

## 4. 고대의 탁월 경관 고분

가락국 시대의 고대 김해를 기억하게 하는 유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해 패총이 있는 구릉지 봉황대이고 다른 하나는 고분이다. 낙동강 하류 저습지대에서, 구릉지대는 오랜 옛날부터 낙동강가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대 취락의 형성도 가능했던 곳이다. 수로왕릉 남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인 ‘봉황대’가 예로부터 가락국의 왕궁터로 전해오고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서 패총의 발굴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김해의 가락국 뿐 아니라 가야 전체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은 낙동강 주변 가야권에 남아 있는 거대 고분이다.

### 1) 고분 시대

세계적으로 고대를 가장 잘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고분과 신전이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일본의 거대 고분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 그 예이다. 한국에서도 4~6세기에 걸쳐 전국 각지에 거대고분이 조성되었다. 거대 고분은 한국의 고인돌을 비롯하여 영국의 스톤헨지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거석문화(Megalithic Culture)가 발전된 상징 경관이다. 거대 고분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물자를 투입하는 축조 과정, 거대한 규모 등에서 고



대 국가 성립기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기념비(Monument)와 같은 위세 경관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도 고분은 고대적 경관을 대표하는 탁월한 경관이다. 불교사찰이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경관이고, 서원과 누정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거대 고분은 삼국시대까지의 고대 경관을 대표하는 경관이다. 거대 고분은, 경관으로 탁월할 뿐 아니라, 기록 자료가 빈약한 고대사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촉발하는 ‘수수께끼(謎)’ 경관이다.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체에 걸쳐 거대고분 문화가 일어난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는 지구 기후환경의 한랭화, 그리고 청동기·철기 무기 보급과 함께 전란이 빈발하였다. 6세기까지는 이를 통일한 한(漢) 제국이 쇠퇴하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져, 집단 간의 간장이 높아지고 정복전쟁이 치열한 시기였다.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는 물론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타나 고대 정복국가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동아시아 각지에는 적석분(積石墳)·봉토묘(封土墓)·분구묘(墳丘墓), 그리고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등 거대 고총(高塚)이 만들어지는 고분의 전성시대였다.

이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고분들은 아직도 무덤의 주인(피매장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이 다수이다. 길이가 수십 m에 이르고 높이는 3m에서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고총(高塚)은 마치 산을 만나는 것처럼 보는 이의 시야를 장악하고 시각을 고정하게 하는 거대 경관이다. 이 탁월한 경관은 사료(史料)가 부족한 고대 국가의 발전과정 뿐 아니라, 고대 사회의 권력구조와 생활문화·사회조직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수께끼 경관이다.



## 2) 전국적 분포하는 고대의 탁월 경관

한국의 전통경관에서 고분은 고대 경관을 대표하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사자의 집 유택(幽宅)은 ‘숨겨진 경관’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고대의 분묘는 과시적(誇示的) 경관으로서 ‘드러냄의 경관’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적 탁월 경관인 고대 고분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 고분 보존의 가치와 활용의 방안을 찾는 길이 된다. 한국의 고분은 ‘고분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이들의 상당수는 현재 도시 지역 내부에 입지한다. 기원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거대고분이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이들 거대고분은 탁월한 전망성을 제공하고 고대사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

“왕이나 호족이 평야를 내려다보는 높은 능선 위에 장방형 석곽을 만들고 그 위를 거대한 봉토를 덮어서 평지 무덤보다 장대하고 위압적으로 만든 것은 자손과 신하를 감시 보호하는 조상의 유택이라는 인상을 준다.” · 김원룡, 1992,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한국의 고분은, 후대의 분묘와 달리, 대체로 국읍(國邑) 중심지에 인접 입지하여 일종의 중심지 경관으로 역할하였다. 국가나 성읍의 최고 권력자가 주인인 고분은 그가 죽은 후에도 신(神)으로 전환되어 자신이 통치했던 공동체를 지켜주는 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그 때문에 고분은 국읍의 중심지 인근 산이나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다. 이들 고분은 현재에도 다수가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도시공원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동시에 고분의 생활공간 인접성은 도시화에 따른 토지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보존과 관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보존과 활용을 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 3) 가야권의 고분

가야권 고분은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대가야, 성주성산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 육 가야 지배층의 분묘이다. 이들 가야 고분은, 김해의 고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산줄기나 구릉상에서 고대 산성(진산)과 연접 혹은 일치하며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산 능선이나 구릉 위의 고분은 그 아래 통치 권역을 전망하는 지세향(地勢向) 경관으로 해석된다. “잊힌 왕국 가야”, “사라진 역사 가야사”는 고대국가 가야를 정의하는 말이다. 고대국가 가야의 특성을 알고 신라와 백제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야의 정체는 가야 고분에 있다. 가야 고분은 높은 산 능선에 다시 산을 만들거나, 산줄기에서 평야를 내려 보거나, 독립된 구릉 위 솟아 있다. 하늘만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산지 고분이 강이 휘감아 흐르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는 전망 경관이 가야 고분이 특성이다.

산을 일상적 삶의 배경으로 해서 산과 친화하면서, 강으로 감싸 안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또 가야 고분은 일본의 <고분시대> 고분과 관련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것 또한 가야 고분의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김해의 가야고분은 다른 가야 고분과 입지와 경관이 매우 다르다. 평지 고분이 많은 것이 특성이다. 수로왕릉은 가야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천년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모시고 관리된 매우 특별한 고분이다.

“수로왕릉(首露王陵) 부 서쪽 3백보 지점에 있다. 해마다 봄가을에 김해부의 부로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지낸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2, 김해도호부 능묘 조

대성동 고분은 역시 김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낮은 구릉 상에 조성된 고분

군이다. 대략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덧널무덤이다. 가야시대 김해지역의 수장층의 공동묘역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기원전에서 6세기까지 초기 왕권 확립 시기의 삼국과 가야의 고분은 ‘전통적 요새지(folk fortress)’에 입지하거나, 전망이 탁월한 ‘자연적 거점(natural strongholds)’ 형으로 성(城)의 입지와 비슷한 유형이다. 실제로 많은 고분군이 산성(山城)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특히 가야계의 고분이 산성과 관련이 크다. 이 시기의 거대 고분은 입지 지형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김해지역의 고분은 다른 가야권 고분과 달리 평지형 고분이다.

#### 4) 6세기 후반부터 고분은 산기슭의 유택(幽宅)으로 변화

고대 상징적 권위 경관의 특징인 탁월한 위세 경관이 사라지면서, 고분이 숨겨지고 지형적으로 비호되는 평온한 유택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추세가 6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경주의 신라고분, 백제의 공주 부여 고분에서, 고분의 입지와 경관이 중심지의 탁월 경관에서 변두리 산기슭 입지의 유택(幽宅)으로 변화된다. 여기에 십이지상과 같은 다양한 석물이 고분에 배치되는 경향도 보인다.

신라의 불교공인(527년: 법흥왕 15)이 이루어진 6세기 중엽이후, 신라 왕릉은 입지가 산기슭 구릉지로 이동한다. 경주 시내 대릉원 고분군에서 서악리 고분, 괘릉으로 고분 입지가 변화한다. 이때부터 불교사찰이 왕릉에 함께 한 것은 왕릉이 더 이상 독자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지 않고 불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래 『三國史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법흥왕 이후 왕릉 입지가 중심지에서 주변 산록으로 변화한 것은 불교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년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니 시(諡)를 법흥(法興)이라 하고 애공사(哀公寺) 북봉(北峰)에 장사하였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4 ‘법흥왕’ 조

“8월에 왕이 돌아 가시 시를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 북봉에 장사하였다.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일심으로 불법을 받들어 말년에 이르러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호(號)하여 삶을 마쳤다. 왕비도 그를 본받아 중이 되어 영흥사에 거주하다가 돌아가니 나라 사람들이 예장(禮葬)하였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4 ‘진흥왕’ 조

일본의 경우도 불교가 전래되는(538년) 6세기부터 대형 고분이 변질된다. 전방후원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7세기를 고분시대의 종말로 본다. 가야 멸망(금관가야 532년, 대가야 562년)은 자연스럽게 가야 고분의 종말을 고한 것이다. 산 위에 산을 만들어 거대 고분의 위용을 자랑하는 가야 고분은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가야를 멸망시킨 6세기 중반 법흥·진흥왕 시대는 신라가 울령을 공포하여 관직을 제정하고 연호를 사용하여 전제 군주제를 확립한 시기이다. 특히 법흥왕 15년(528)은 불교가 국교로 정해져 고대국가의 종교 사상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렇게 보면 가야의 멸망은 불교의 도입과 시기를 같이 한다. 6세기 이후 법흥·진흥왕 때부터는 멸망한 가야에서는 물론 계속 번영한 신라에서도 도시 내부에서 거대고분이 사라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유택(幽宅)이 된다. 다만, 가야 불교의 ‘해양전래설’이 말하는 것처럼 북방전래와 별도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면, 가야의 거대고분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 5. 지방행정 중심지 조선시대의 김해

신라는 한반도의 치우친 곳에 입지한 작은 국가로부터 출발해서 통치 영역을 확대해간 정복국가 체제였다. 지방 거점인 구주(九州)에는 군사령관 격인 총관(도독)을 두고, 점령한 다른 왕조의 중심지에는 소경을 두어 망국의 백성

을 회유하고자 했다. 고려는 호족 지방 세력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후삼국의 혼란기를 통일하였다. 지방세력과의 연합한 고려왕조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다. 고려의 지방 군현은 조정에서 수령을 파견하는 주읍(主邑)과 호족의 지배하에 있는 속군·속현·부곡(部曲)·향(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고려시대에 김해는 금주(金州)라고 불렸는데, 지방 행정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주읍이었다. 고려시대 김해는 오늘날 도청소재지에 해당하는 목(牧)급은 아니지만, 양산과 함께 도호부(都護府) 계통의 방어군(防禦郡)에 해당하는 주읍이었다. 고려시대 김해는 해읍(海邑)으로서 지금 경남 동부 낙동강 서쪽의 남해안의 의안(창원), 함안을 속군(屬郡)으로 거느리고, 칠원·웅산(웅천)·합포(마산) 등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낙동강 건너편에는 양주(良州)가 동평(동래)와 기장을 속현으로 거느렸고, 북쪽에는 밀양이, 서쪽에는 진주가 목(牧)으로써 남부 낙동강 서쪽의 중심지였다. 고려시대 김해는 지금의 마산·창원 권을 속현으로 거느린 대읍에 속했던 것이다.

## 1) 지방 군현 읍치의 공간구조

조선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고 유교적 교화를 중심으로 민본정치를 표방하는 문치(文治)국가였다. 조선시대 경상도 71개 군현 모두에 조정에서 수령을 파견하였다. 국왕을 대신한 고을 수령이 다스리는 군현의 치소가 있는 읍치(邑治)는 곧 작은 한양이었다. 군현의 읍치는 한양과 비슷한 공간구조와 시설을 갖추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김해는 도호부(都護府)였지만, 고려시대의 ‘금주’에서 ‘김해’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州)라는 명칭은 목 단위의 군현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조정에서 파견된 수령의 치소가 있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조는 3가지 공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연적 풍수적 입지 차원이다. 입지는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각종 지리지의 형승(形勝) 조에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서문에 “형승은 사방 경계를 당겨 두르는 것으로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경위(經緯)로 삼고, 높은 성과 보루(堡壘)로 옷깃처럼 둘러쌌습니다.” 한 것인데, 군현의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는 읍치 둘레에 배치된 제의(祭儀) 장소이다. 조선시대 모든 군현의 읍치에는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제사 시설을 통합하여, 문묘(文廟)·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祠)·여제단(厲祭壇)을 각각 읍치의 동서 남북의 방향에 설치하였다. 문묘는 고려 때부터 있던 것으로 향교 안에 두었다. 사직단(社稷壇)은 ‘社’와 ‘稷’의 합성어로 社는 土神, 稷은 穀神으로 이해된다. 사직은 문묘와 달리 사당 안에 모시지 않고 야외에 제단을 만들어 상로 풍우(霜露風雨)를 직접 받을 수 있어 천지의 기(氣)에 접촉하도록 한 것이다. 문묘와 사직은 유교적 제사 장소이다. 『동국여지승람』 서문에 형승 조 다음에 “廟와 社를 먼저 기재한 것은 祖宗을 높이며(尊祖宗<sup>6)</sup>), 신기를 공경(敬神祇<sup>7)</sup>)하는 바”라고 종묘(宗廟) 사직(社稷)을 설명하고, “寺刹은 歷代로 거기서 福을 빌었고, 祠廟는 先賢을 追崇한 것입니다.” 하여 불교나 이른바 음사(淫祀)도 전통적 민간신앙으로 보아 포용하였다. 조선은 유교 국가이지만, 다른 전통 신앙에 대해서도 관대했던 것이다. 인물을 제사하는 묘(廟)와 땅과 곡식의 신을 제사하는 사직(社稷)은 이른바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각각 읍치의 동과 서쪽에 세워졌다. 토속 신앙에 속하는 성황사(城隍祠)·여제단(厲祭壇)은 전통적 제사장소로 각각 읍치의 남쪽과 북쪽에 배치된다. 성황사는 지역의 다양한 수호신격을 제사하는 곳이고, 여제단은 억울하게 죽어 제사를 받드는 이가 없는 불쌍한 귀신을 모아서 제사하는 곳이다. 이들 文廟·社稷·城隍

6) 祖宗: 祖는 창업자, 宗은 嫡統의 후계자

7) 神祇: 神은 귀신 祇은 토지 신

·厲祭 라는 4개 지방 군현 제사는 지방 수령이 주재하는 제사이다. 전통사회에서 종교적 시설들은 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선의 읍치에서 제사시설은 읍치의 외곽에 동서남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유교사상의 비종교적, 현세적 특성을 의미하며, 유교적 정치권력과 종교적 신앙은 분리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읍치의 세 번째 공간구조는 읍치 중심부의 구성이다. 읍치 중심에는 동헌(東軒) 객사(客舍) 등 현실권력의 권위적 장소가 나타난다.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宮室을 쓴 것은 上下의 구분을 嚴하게 하여 위엄과 무거움을 드러내는(嚴上下示威重) 것입니다.” 하였는데, 지방군현에서 궁실이란 객사를 의미한다. 궁실을 통하여 상하 구별을 엄하게 하여 권위의 엄중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유교의 예(禮)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위 경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와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에서 시작하여, 이아(貳衙: 향청), 질청(아전의 사무실), 진영, 형옥, 창고 등이 위계적으로 배치된다.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 덕목인 인(仁)은 예라는 외적 윤리를 통하여 실현된다.<sup>9)</sup> 예는 차별적인 위계 질서로 표현된다.<sup>10)</sup>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유교 사회에서 사회적 등차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권위적 시설을 위계에 따라 산 아래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배치한다.<sup>11)</sup>

궁실에 해당하는 객사는 읍치에서 가장 높은 위계의 건물이다. 객사는 주산의 발치가 되는 읍치의 중심 장소에서 남북의 절대향이나 지형적 상대향을 활용하여 읍치 공간을 압도한다. 두 번째 권위적 장소는 동헌으로 보통 객사의 오른쪽 혹은 뒤편에 입지한다. 이들 권력 공간 간에는 상하와 사방의 위계적

8) “子路問事鬼神，子曰 未能事人，焉能事鬼。曰 敢問死，曰 未知生，焉知死” - 『논어』, 先進.

9) “禮自外作” - 『禮記』

10) “예라는 것은 천리의 節文인데, 節이란 등차를 말하는 것이고, 文은 문채이다.

(禮者, 天理之節文, 節謂等差, 文謂文彩) - 『論語集註』, 顏淵. “예는 하나의 차례(禮只是一箇序)” - 『論語集註』, 陽貨

11) “禮리는 것은 천지간에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禮者天地自然之理)” 『朱子語類』上, 권41, 禮錄



상징성이 활용된다. 즉 외삼문과 내삼문, 대문과 중문, 계상(階上)과 계하(階下)를 상하의 위계질서로 활용하며, 현신(現身)과 은신(隱身)<sup>12)</sup>도 있다. 한편 북(남향)-동-서-남의 순서로 좌향에서도 위계가 있다.<sup>13)</sup>

왕권의 권위를 재현하는 객사는 건물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입지에서 ‘위풍당당(威風堂堂)’, ‘엄숙정제(嚴肅整齊)’ 그리고 중심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곳이 읍치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장소임을 암시한다. 우선 입지에서 객사는 읍치 내 가장 중심부에 있다. 읍치의 중심부 입지는 조선시대 읍치 도로망의 전형인 ‘丁’ 자(T) 모양 도로망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다. 객사가 위치하는 자리는 읍치의 공간적 중심에 입지하는 경우와 진산(주산)의 맥에 기대어 산 쪽으로 치우쳐 읍치 전체를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입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객사는 고을 수령이 초하루 보름에 국왕에게 망궐배(望闕拜)하는 정청(正廳)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접대하고 숙소로 사용되는 익사(翼舍)로 구성된다. 객사는 건물 형태가 전국 3백여 모든 읍치에 획일적이어서, 객사 건물은 알아보기 쉽다. 객사 건물은 형태는 한양의 종묘 건물을 연상시키는 좌우대칭형이다. 건물 중앙부가 정청이고 좌우 날개가 익사이다. 정청 지붕은 좌우의 익사보다 한 단 높이는 것이 기본이었다. 객사 건물은 고을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이다. 객사는 인근에 누각 정자를 부속 건물로 거느리는 경우가 많은데, 김해 객사가 대표적이다. 조선왕조가 망한 후, 객사는 용도 전환이 되어, 초등학교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시내 중앙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장터가 된 곳도 있다. 김해·동래·창원이 객사 터가 시장이 된 경우이다.

조선의 읍치에는 문화적 장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학교와 정려(旌閭) 등

12) 『經國大典』, 京·外官 迎送 條

13) “堂上官이 모여 앉을 때, 正一品은 북쪽, 從一品은 동쪽, 二品은 서쪽, 三品은 남쪽에 앉는다.” 『경국대전』 京·外官會座 條

14) 산이 많은 경상도 읍치의 경우, 주산의 발치에 객사가 입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대읍인 경주, 안동, 상주는 산 아래가 아닌 읍치의 공간적 중심이다.



이 대표적이지만, 누대, 곧 누각과 정자가 있어 경치를 즐기며 손님을 접대한다. 누대에는 누대의 의미를 밝히는 제영(題詠) 기문이 있어 조선이 유교적 문치국가임을 알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통해서 수령이 심성을 함양하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sup>15)</sup>

## 2) 조선시대 김해 읍치 경관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편에 거제의 형승을 “서남쪽으로 큰 바다에 닿아 있다. 옛 가야의 터이다.” 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것은 지리적 조건이고 가야의 터전은 역사적 조건이다. 산천 조에서는 분산, 신어산, 구지봉, 가조산, 운점산을 차례로 든다. 분산은 거제의 진산(鎭山)이자 주산(主山)이다. 신어산(神魚山)은 김해 읍치의 동쪽을 낙동강으로부터 지키는 큰 산줄기로 산이 높아(630m)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김해 읍치의 조산(祖山) 줄기에 해당하고 그 끝이 읍치의 좌청룡을 이룬다. 구지봉은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지이다. 가조산은 곧 임호산으로 김해읍치의 우백호가 된다. 운점산은 임호산의 윗줄기이다.

김해 읍치는 바다에 가깝지만 좌청룡 우백호가 주산과 명당을 감싸는 국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남쪽 수구가 완전히 개방되어 매우 허(虛)하다. 조선시대 읍치는 흔히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배치라고 부르는 풍수형국(風水形局)을 갖춘 곳에 자리한다. 한양은 백두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 끝자락의 산(白岳)을 주산으로 뒤에 두고, 그 아래에서 물줄기를 바라보며 입지한다. 한양과 마찬가지로 군현의 읍치는 장풍득수(藏風得水) 형국을 갖춘 주산(主山) 아래에서 좌청룡 우백호를 두르고, 전면에는 명당수를 두고, 안산(案山)을

15) “樓臺는 때에 따라 경치를 즐기며(以時遊觀) 사신을 접대(待使臣)하는 곳이요, 院宇는 여행자를 쉬게 하고 도독을 금하는 것입니다. 關防을 웅장하게 한 것은 침입하는 폭력배를 방비하는 것이요. 站驛을 벌려 놓은 것은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물은 과거의 어진 이를 기록한 것(人物記己往之賢)이요. 名宦은 장래에 잘 하기를 권한 것(名宦勸將來之善)입니다. 또 마지막은 題詠이니 여러 가지를 읊조리며 임금님의 德(王化)을 노래하며 칭송함은 실로 詩와 文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바라본다. 이러한 풍수형국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읍치 자체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비보(裨補)시설을 두어 풍수적으로 부족한 요소를 보완한다. 읍치 자체를 옮긴 사례로는 전남의 낙안읍이 있다.

김해의 경우 각종 고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뒷면의 산줄기와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명당수 호계(虎溪)까지 잘 갖추었다. 그러나 전면에 안산이 없고 우백호에 해당하는 임호산은 바위가 드러나 보이는 험악한 빛이 있다. 임호산은 김해읍의 오른쪽 전면에 있어 김해읍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잘 지각되는 산이어서 그 모습이 신경 쓰인다.

가조산(加助山) 다른 이름으로 留民山이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流民山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사 박시좌(朴時佐)가 부임해 와서 지금으로 이름인 가조산으로 바꿨다. 관아의 서쪽 5리에 있다. 雲岫山에서 뻗어 나와서 읍터의 바깥 백호 줄기를 이룬다. - 『여지도서』김해 산천조

임호산은 읍치의 전면에 잘 보는 곳일뿐 아니라 산세가 험악하여 매우 강한 느낌이다.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이름도 안민산, 악산, 호구산 등 매우 다양하다. 우백호인 임호산은 높고 가파르며 그 정상 가까이 파진 바위가 드러나 있어 마치 호랑이가 입을 벌린 것을 연상하게 한다. 험악해 보이는 임호산의 나쁜 기운을 누르기 위한 비보(裨補)로 호랑이 입에 해당하는 곳에 흥부암(興府庵)이라는 암자를 두었다. 김해부를 흥성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림 사진 참조) 『여지도서』와 『해동지도』를 보면 김해 읍성 앞에 안산(案山)이 있어야 할 부분에 내삼태(內三台) 외삼태(外三台)라는 작은 산이 그려져 있다. 이른바 조산(造山) 비보에 해당한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구의 허결(虛結)을 비보하는 조치이다. 지금은 없어지고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다.

멀리 있으면서 맑고 빼어나 보이는 산이 조산(朝山)이다. 김해는 수구가 터

져 있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구가 가까워 멀리 바라보이는 깨끗한 조산(朝山)이 없다. 이 조산 역할을 대신해 온 것이 이른바 칠점산(七點山)이다. 칠점산은 지금 김해공항 근처인데, 일제시대 말부터 비행장 공사를 하느라 차츰 깎아 버려 하나만 간신히 남아 있다고 한다. 아래 글은 조선시대 삼차수 사이에 있는 칠점산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다.<sup>16)</sup>

세 갈래로 바다로 들어가니 삼분수(三分水)라 하였는데 달리는 삼차수(三叉水)라고도 한다. 그 물줄기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취량(鷲梁)이며 산에는 일곱 봉우리가 있으니 비취빛 쪽 찢 머리나 푸른 소라 같았다. 강물은 넓고 아득하며 흰 모래가 신기루처럼 펼쳐졌다. 그 밖은 푸른 바다로서 남으로 북으로 배가 출몰하며 엇갈려 지나갔다. - 이만부 『息山集』

정박한 곳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다. 7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마치 석탑이 항구 안에 흩어져 떠 있는 것 같고, 좌우의 소나무와 삼나무의 비취색 그늘이 물에 거꾸로 서있었다. 작은 배에 옮겨 타고 7개 섬 사이를 돌아다니니 돌아올 근심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정사와 부사가 쪽지를 보내어 뒷산 봉우리에 올라가자고 하였는데, 피차 모두 배를 정박한 뒷산이다. 드디어 지팡이를 짚고 올라 가니, 산봉우리의 형세가 차츰 험준하고 시계(視界)도 넓적하였다. 세 사신이 소나무 밑에 모여 앉아 함께 칠언율시를 지었다. - 조명채 『奉使日本時見聞錄』

낙동강이 임경대 좁은 수로를 빠져나와 넓게 퍼져 흐르면서 칠점산 근처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삼차수(三叉水)'를 이룬다. 낙동강 물이 칠점산 앞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경치가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여 신선이 사는 세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가락국 2대 왕인 거등왕 때 참시(昆仙)라는 신선이 살았는데, 거등왕이 초현대(招賢臺)를 쌓고 칠점산에서 거

16) 엄경흠, 2013, “김해 칠점산 관련 한시의 심상과 그 의미”, 石堂論集, 57집

문고를 타며 지내는 신인(神人) 참시 산인을 불러 들여 살게 했다고 한다. 『여지도서』 지도에 ‘초현대’는 초선대(招仙臺)로 표시되어 있다. 지금은 하나가 되어버린 김해 삼각주가 칠점산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여지도서』 김해부 지도 참조)

바다 위 신선 산은 일곱 점으로 푸르고, 거문고 타니 둥글고 흰 달이 밝다.

세상에 섬섬옥수 없다면, 그 누가 태고 적의 정을 연주하리요. - 田緣生

칠점산은 한폭 그림 같고, 삼차수는 하늘에 닿아 있네. - 禹均

### 3) 분산성과 김해읍성

#### (1) 산성과 읍성

김해 읍치 북쪽 3리 盆山(375m)에 분산성이 있다. 삼국시대 때부터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고려 우왕 3년(1377) 김해부사 박위가 다시 수축하였다. 고종 8년(1871)에 부사 정현석이 다시 쌓았는데, 금정산성의 예에 따랐다고 한다. 분산성은 김해의 진산이며 또한 성황사가 있다. 오래전부터 산성이 있었던 산을 진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경상도의 상당수 군현에서 보인다. 또한 분산성 안에 성황사가 있는데, 산성과 성황사, 그리고 진산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읍의 수호신격을 제사는 성황사는 특별한 역사적 연원이 없는 경우 남쪽에 만든다. 그러나 김해의 경우 분산은 산성이 있고 또 읍을 진호(鎭護)하는 진산이므로 고을을 수호하는 제사를 받드는 성황사가 입지하게 된 유서 깊은 산이다. 분산은 읍치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읍치 바로 뒤쪽에 자리 잡아서 읍치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이와 위치에 있어서 전시에 피란하여 방어하기에 적합하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어렵던 시기에 박위가 옛 산성을 석축으로 넓고 크게 다시 쌓았다. 여기에 정몽주가 쓴 김해 읍성의 기문에 “김해 백성들은 평소 위급한 일이 없으면 산성에서 내려와 밭을 갈고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잡다가 긴급 사태를 알리는 봉수를 보게 되면 처자식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배개를 높이 베고 편히 누워도 좋을 것이다. 험준한 요새를 만들어 스스로 방비하는 것을 그 누가 졸렬한 계획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김해 읍성은 세종 16년(1434)에 처음으로 석축으로 쌓았다. 굴곡된 방향의 평지성으로 여러 차례 개축되었는데, 고종 32년(1895) 이후 모두 철거되었다. 북문 공진문(拱辰門)이 복원되었다. 성벽 일부는 동상동 315·15에 잔존하고 있다.

## (2) 제의 시설

문묘가 함께 있는 향교는 부 북쪽 3리(대성동 224번지)에 있다. 예전에는 부 동쪽 2리에 있었으나 주산이 무너지고 퇴락하여 숙종 14년(1668)에 송악산 아래로 옮겼다. 전학후묘(前學後廟) 체제로 누문과 동 서재가 있고 문묘에는 동무(東廡) 서무(西廡)가 있다. 사직단은 읍지에 서 3리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김해시 봉황동 봉황대 황새바위 북쪽에 해당한다. 여단은 『여지도서』에 북 7리라고 하였는데 현재 위치는 미상이다.

김해의 성황사는 남쪽이 아닌 북쪽 산성이 있는 진산인 분산에 있다. 경상도의 상당수 군현에서 이런 경우가 확인된다. 고려시대 전기까지 산성이 군현의 권력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관성이 조선 초기에 성황사가 산성에 입지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는 성황사가 산성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적 진산에 입지한 대표 사례이다. 『동국여지승람』사묘조에 부 북쪽 금강사 서북쪽 200보쯤에 松岳堂에 神祠가 있는데, 고려 원종 때 장군 김방경이 일본 정벌 시 송악산 신에게 제사하여 고을 사람이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을 성황신에게 제사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도 겸해서 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객사

김해 객사는 분성관(盆城館)이다. 객사의 고유 명칭은 군현의 별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해도 ‘분성’이라는 별호를 객사의 고유 명칭으로 하였다. 객사는 남향이다. 경상도읍지의 <김해부지도>에 의하면 좌객사 우동헌의 관아 배치를 하고 있다. 1443년에 公廡(객사)가 화재로 소실되어 부사 박눌생이 중건하였다. 지금 객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터는 김해재래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객사가 현재 재래시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객사 자리가 읍치의 중심이라는 방증이 된다. 동래와 창원 역시 객사 자리에 재래시장이 들어섰다.

## 4) 김해 읍내 호계의 누정

조선은 백성을 교화하여 다스리는 문치국가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아름다운 산천형승의 기운이 덕으로 순화되어 잘 받아들여지도록, 경치가 좋은 곳에 누정을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편에는 음성 안에 샘 28개와 냇물 하나가 있는데 사철 마르지 않는다 하였다. 이 냇물이 호계(虎溪)이다.<sup>17)</sup> 객사가 가까운 호계에는 여러 개의 정자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음성 가운데 북에서 남으로 흘러 명당수는 이루는 호계가 분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강창포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김해부지도>에도 호계가 객관 동쪽에 잘 나타나 있다. 涵虛亭·燕子樓·臨錦堂·清心樓 등 누각이 이 호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다. 이 정자들을 읊은 많은 시문들이 지리지에 전한다. 호계를 따라 늘어선

17) ‘호계(虎溪)’ 이름은 중국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앞에 있는 시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진(晉)나라 때 혜원법사(慧遠法師)가 동림사에 있으면서 손님을 보낼 때 이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 문득 호랑이가 울었다. 하루는 도연명, 옥수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넘자 호랑이가 우니, 세 사람은 크게 웃고 헤어졌다고 한다. (《東林十八高賢傳》)중국 남방 불교의 개척자 혜원(慧遠)과 유학자 도연명(陶淵明)·도교의 옥수정(陸修靜) 세사람이 호계(虎溪)에서 크게 웃었던 고사를 그린 그림이 <삼소도(三笑圖)>이다.

김해 읍치의 누정 가운데 맨 위에 있는 함허정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연자루 북쪽에 있다. 부사 최윤신이 세운 것이다. 호계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 가운데 정자를 지었는데, 매우 조출하고 시원하다.” 하고 탁영(濯纓) 김일손의 涵虛亭 기문을 싣고 있다. 기문에 쓰기를, 김해는 옛 가야의 땅이라 기이한 자취가 많다. 최부사가 호계 물을 끌어들이어 연못을 만들고 작은 정자 함허정을 지었다. 최부사가 항상 손님을 맞이하여 술 마시길 즐기고 애써 머무르게 하니, 사람들은 그를 물위의 신선처럼 보았다. 최부사가 좌의정 어세겸에게 정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여, ‘하늘을 머금는다’는 뜻으로 ‘함허정(涵虛亭)’이란 이름을 받았다. 부사가 탁영에게 기문을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어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문에서 탁영은 함허정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때대로 이 정자에서 맑고 깨끗한 물처럼 마음을 비우고 본성을 회복하여 훌륭한 정사를 힘쓸 것을 권유한다. 곧 호계 가의 정자는 한낱 풍류를 즐기며 손님을 즐겁게 하는 곳이 아니라, 수령과 선비들이 맑은 물을 바라보며 허령(虛靈)한 본성을 함양하여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수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물의 본성(本性)은 두루 흘러서 정체하지 않으며 그 체는 허(虛)하다. 그 까닭에 물은 능히 물을 잠기게 하고 반영한다. 그러나 일단 탁류가 되어 그 본성을 흐리게 한다면 어찌 물체를 잘 비치게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사람의 마음도 용(用)은 움직여서 다함이 없고 본체는 고요하여 본래 허(虛)하다. 허한 까닭에 오덕(五德)과 만물을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 그런데 간사한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면 흙탕물이 이는 것처럼 본체의 허함을 잃어서, 만사의 용이 이치에 어긋나게 되고, 마음에 응하고 정사에 통하는 것이 모두 천박하게 된다. 공무를 보다가도 시끄러움이 그쳤을 때, 단아한 차림으로 정자에 오르면, 바람과 달이 함께 밝으니, 물이 하늘을 잠겨 비치는가 하늘이 물에 잠겨 비치는가 하는 함허(涵虛)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최부사는 잠자코 앉아 조용하게 바라보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여 본체를 회복하면, 사소한 찌꺼기라도 자신의 마음속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연비 어약(鳶飛魚躍)하는 천지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나는 늙고 병든 몸이니, 어찌 천광(天光)과 운영(雲影)이 함께 어리는 모습을 보며, 것처럼 맑은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으랴!<sup>18)</sup> 이렇게 함허정의 경치를 적어 최부사께 들려주노라.

탁영은 이어 임금당(臨錦堂) 기문에 호계천의 여러 정자를 그렸다.

호계의 물줄기가 분산에서 흘러나와 팔팔거리며 나는 듯이 흐른다. 북쪽 성곽으로 흘러들어 파사탑(婆娑塔)을 지나서, 온 성을 가로질러 남쪽 성곽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물이 얇아서 겨우 부들 풀 따위를 흘러 보낼 정도이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니, 대개 근원이 있어 흐르는 물이기 때문이다. 성 안에 흐르는 물줄기 좌우에 돌로 둑을 쌓아서 냇물의 흐름을 막고 그 가운데를 비우고는 위에다가 높은 누각을 지었으니 이름을燕子樓라 한다. 누각은 높는데 시냇물은 졸졸 흐르는 물이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그 아래로 50보쯤 되는 곳에 누각을 하나 지으니 이름이淸心樓이다. 청심루는 조금 낮고 시냇물이 조금 고여 있어서 물소리가 손님의 베갯머리까지 들리니, 누각이 물과 더불어 제법 어울린다. 그러나 훌륭한 경치를 모두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항상 조물주의 솜씨에 대해 한스럽게 여겼다....

---

18) 朱子 詩, `觀書有感`의 의미함축을 말한 것이다. “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如許清, 爲有源頭活水來”









#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웅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김해문화유산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